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9억 원

-모투자신탁 125억 원

펀드유형

-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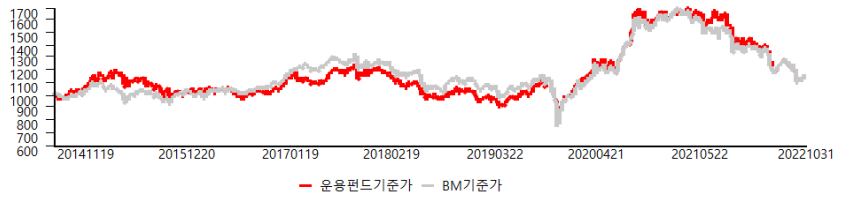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5.87%	-6.58%	-15.20%	-25.58%	0.34%	16.29%	-1.54%	16.65%
클래스 C	5.75%	-6.94%	-15.86%	-26.73%	-2.65%	11.14%	-8.80%	3.26%
클래스 C-E	5.79%	-6.83%	-15.66%	-26.37%	-1.73%	12.72%	-6.60%	-5.70%
클래스 S-P	5.80%	-6.79%	-15.58%	-26.23%	-1.38%	13.28%	-5.90%	14.25%
벤치마크	6.41%	-6.44%	-14.90%	-22.79%	1.17%	10.09%	-9.11%	16.6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2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2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1.0	JYP Ent.	오락-문화	3.9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8.9	LG화학	화학	3.0
삼성SDI	전기,전자	6.0	셀트리온	의약품	2.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5.2	삼성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5.0	현대미포조선	운수장비	2.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 : 총 연 0.935% (판매 0.35%)
- (공통사항)
-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6.41% 상승한 2,293.61pt, KOSDAQ은 3.37% 상승한 695.33pt로 마감하였습니다. 9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낙폭 과대 인식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부진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따른 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과 이에 따른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전자부품, 철강, 정유, 반도체 업종 등이 KOSPI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화장품, 자동차, 엔터 투어, 유틸리티, 인터넷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다소 약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강세를 보이며 1,424.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WTI 기준 국제 유가는 전월 대비 상승하며 86.63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약 3조원을 순매수하였고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는 각각 약 6천3백억원, 약 2.6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제 데이터 및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펀드에서는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등의 정책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비중을 조정시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펀드의 업종별 성과를 보면 전자부품, 화학 업종과 화장품 업종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엔터 투어, 조선 업종과 은행 업종의 시장 비중 대비 overweight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SDI,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현대미포조선, 주요 아티스트들의 성장이 8~10월 사이 확인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된 JYP Ent., 중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인해 카지노 업계 규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마카오 카지노 주가가 급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파라다이스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증시는 월 초반 미 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혼조세를 보인 후 점차 안정세를 찾을 전망입니다. 여전히 높은 국내외 물가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부진이 심화해 예상되는 가운데 연속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유럽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 전반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초 이후 큰 폭의 조정 과정에서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고 있는 기업, 불리한 거시 환경 하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우량 기업 등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과 매수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데이터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레고랜드로 인해 촉발된 유동성 이슈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는 했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금리 환경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부진한 데이터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고용지표입니다. 연준은 고용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이민자들을 대신해 일할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쉽게 고용 데이터가 미 연준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러한 충돌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크레딧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치분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지원주에 대한 포지션 유지, 선제적인 추정치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저점 매수,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생겨나게 될 capex 투자 사이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투자 축소와 언급한 이후, SK하이닉스가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보다 강한 투자 축소와 감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공급 조절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급 축소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생겨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로 중국 공장에 대한 우려들이 아직 큰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공급 솟이지를 불러오는 부정적인 이슈이기 단기적으로도 공급 축소에 업체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저점 매수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Capex 투자 사이클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변화에서 생겨나는 투자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전환을 보면서 전통 에너지원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재편 투자에 대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 비교우위에 따른 각국의 역할 분담에 의지할 수 없고, 중국이 담당하던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기계 업종 등의 투자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창출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초과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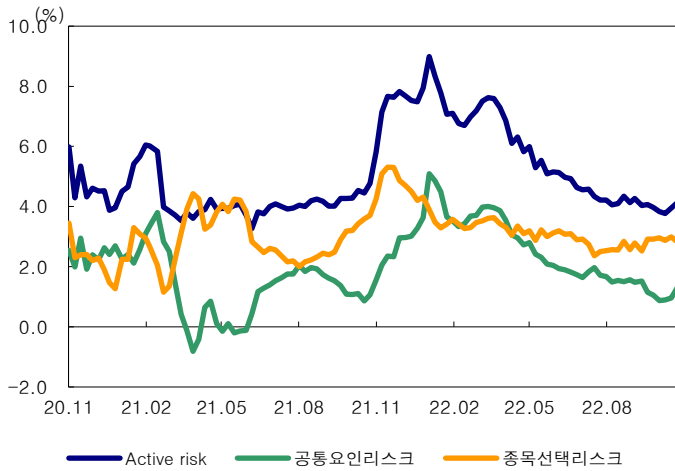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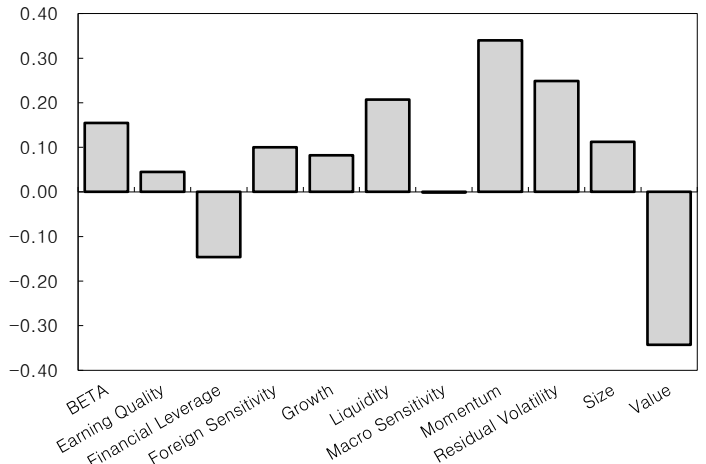
	2022-10-31	2022-09-30
Active Risk ¹	4.09%	3.97%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1.28%	1.05%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0.83%	0.38%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45%	0.67%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2.81%	2.92%
베타	0.91	0.87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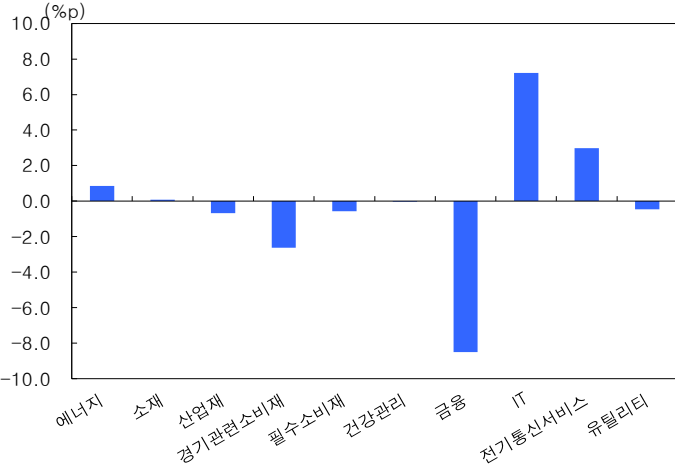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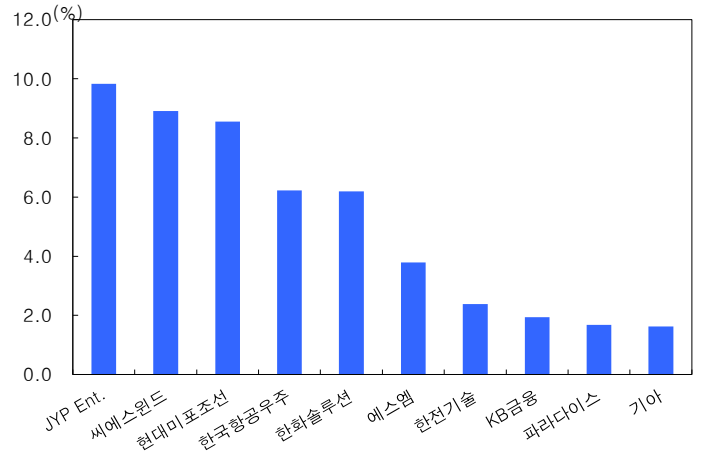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0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09%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5개 종목 감소하여, 45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IT',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산업재',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현대미포조선'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한전기술'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